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안군 도의원 후보자

환경정책 및 공약 탐구

'자연과 함께' 꿈과 희망은 이루어진다.

환경! 녹색! 생태! Echo! 는 21c 현재와 미래사회의 최대화두이며,

우리고장 함안, 군민의 삶의 질, 행복한 세상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다.

6.4 지방선거 함안지역 후보자는 올바른 환경보전 정책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의 중요성 인식하며, 환경문제에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군민과 후손들이 다함께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함안환경보전협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의 환경정책과 공약 검증으로

- 환경우수 정책 육성
- 환경파괴 정책 선별 -> 후보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환경파괴 위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수한 환경정책 유도와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연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의 중요성을 정책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함안환경보전협회는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우수한 환경보전 정책과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이며, 당선 후 후보자의 환경정책 실천 여부를 감시, 감독할 것이다.

함안군 제 1 선거구

무소속 이 관 맹

친환경문화도시 지향! 환경친화적 기업 유치

▢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환경정책 및 공약 소개

경상남도의회 의원선거 함안군 제1선거구 입후보자 무소속 기호5번 이관맹 후보의 "환경정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함안군은 휴양, 레저, 문화가 결합된 친환경문화도시를 지향하여야 합니다.
- 휴양공간 조성, 자전거 이용확대, 문화공간 조성 등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함안군과 경상남도의 환경정책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해서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환경친화적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함안군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농복합-농공병진형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함안군의 농업·공업의 병진 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기업 활동과 자연 환경의 조화를 적극 고려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친환경적 기업이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가장 쾌적한 자연과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관맹 후보는 함안군을 대표하는 경남 도의원으로서 함안군의 정책이 잘 관철되도록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책을 연구하고 실행을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6.4 지방선거 함안군 환경 현안 질의서

1. 함안군의 산재한 공장들과 앞으로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

- 농촌지역 난개발의 가장 큰 제도적 원인은 국토 난개발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택과 공장 용지 등의 공급과 지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1993년 도입된 '준농림지역제'라 할 수 있음.

- 이후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을 보완을 위하여 각종 보완책들을 시행하였으며 그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 정책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전용은 매우 엄격해진 반면, 그 이외의 지역들은 전용이 쉽게 되어 공장용지가 필요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투자 이윤을 노린 투기자본까지 가세하여 농촌지역 구석구석에 "공장" 등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예, 함안군의 현실)

- 향후 함안군 외곽 농촌지역의 공장부지 허가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심사와 법률 적용 및 함안군 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의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함안군은 가동 중인 칠서, 함안일반, 법수우거, 군북월촌 산업단지와 조성 중인 대산대사, 법수강주, 장지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착공 예정인 칠서태곡, 대산부목, 대치일반 산업단지를 적극 활용하여 함안지역 입주 희망 기업체들을 산업단지로 유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행정적, 예산적 뒷받침을 하여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상남도 의회 의원선거 함안군 제1선거구 입후보자 기호5번 이관맹은 도의원 당선시 환경과 생산이 조화되어 함께 가는 함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위의 정책들이 경상남도 차원에서 제도적, 예산적으로 뒷받침 속에서 추진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함안의 영산! 여항산의 보전과 폐쇄된 정지병 약수터에 대한 대책?

- 여항산은 함안군의 주산(主山)이자 낙남정맥의 최고봉으로 우리 함안군의 위용과 자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함안군 도의원 선거 제1선거구 입후보자 무소속 기호5번 이관맹 후보는 일찍이 함안군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여항산을 위락단지로 개발하고자 계획되고 있던 "경남랜드" 건설에 대해 절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 현재 여항산과 여항면 주서리 일대에는 전원주택들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는바 생활쓰레기 등의 각종 오염원 및 등산객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경상남도 도의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대장균 검출 등의 위생적인 문제로 폐쇄된 정지병 약수터의 경우 "약수터를 약수터답게 하는 약수터 정비"를 통하여 위생상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적, 행정적 정비사업 추진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 기호5번 이관맹이 도의원이 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지병 약수터가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들어 마산, 창원 등 인근 지역민들이 입소문을 통하여 물 좋고, 공기 좋은 여항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항산에 약수터가 없어서도 안 될 것이며 따라서 대표적 약수터라 할 수 있는 정지병 약수터를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 입니다.

3. 자연늪 보전(유전,질날,대평늪)과 사라진 늪 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현재 함안군의 대표적인 늪이라 할 수 있는 질날늪, 대평늪 등은 옛날 함안군 지역에서 농지 개간을 위해 제방을 쌓은 이후 농지가 아닌 하천 범람을 대비한 저류지와 농업 용수 공급의 기능을 하는 늪지로 보존된 곳입니다.
- 우리는 태풍 매미, 루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으며 희소성으로 인한 늪지의

가치성 뿐만 아니라, 범람하는 물을 1차로 가두는 “저류지로서의 늪지“의 필요성을 경험하며 인간의 탐욕에 의하여 공장부지 등으로 사라지거나 훼손된 늪지의 중요성을 각성한 바 있습니다.

- 때문에 지금부터는 늪지 보존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자연으로서의 늪지“를 추구하여 가야하겠습니다.

- 따라서 현재 보존되어 있는 늪지들은 “생태학습장 및 농촌 생활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자연으로 보존하고 생활속에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호5번 무소속 도의원 후보 이관맹은 도의원이 된다면 람사르 총외 등을 유치하며 늪지(습지)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재고한 바 있는 경상남도에서 함안군이 추진하는 늪지 보존 정책들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 사라진 늪지 복원의 경우 이미 “사유재산“이 되어버린 관계로 복원을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절차와 대단히 막대한 비용적인 요구가 있을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칠서 폐기물처리장과 칠서공단의 만성적인 환경 민원에 대한 대책?

- 칠서 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으로 인한 논란의 경우 애초에 함안군에서 추진했던 칠서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만 가능한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계획을, 칠서산단관리공단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의 산업폐기물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일반 지정폐기물 중간 및 최종 처리시설“로 변경함으로 하여 생존권과 생활보호권 침해를 주장하는 칠서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한 사안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이 사안은 함안군과 함안군 의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칠서산단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함안군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농촌형(비닐하우스,논 등)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근절 대책?

- 농촌형 환경훼손 요인(폐비닐하우스 비닐, 폐농약병, 생활쓰레기)등은 그 심각성이 대두된 이후 많은 대책 추진과 행정적 계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폐비닐하우스 비닐 수거 문제의 경우 폐비닐의 재활용이 가능함으로 하여 전문적인 업체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곽 마을 지역의 소규모 폐비닐까지는 완전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함안군에서 정책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비닐하우스 건축 신고제 등을 도입하고 또한 수거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폐비닐 수거에 우선권을 주되 외곽 마을 지역 폐비닐 수거와 폐농약병 수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 법수면 농공단지 내 십여 년간 방치되고 있는 폐주물사 공장 산업폐기물 처리 대책?

- 폐주물사 처리 문제는 우리 함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 법수면 농공단지 내에 있는 폐쇄된 주물공장의 폐주물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함안군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난제는 회사 가동은 멈추었으나 폐주물사는 여전히 개인의 사유재산이기에 행정에서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라 판단합니다.
- 우리나라는 우수한 주물사가 산출되지 않기에 대부분의 주물사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주물의 재조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생처리 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그렇게 재생처리 하여 재활용할 경우 법수면 농공단지 내 주물공장의 폐주물사의 경우 근본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 따라서 폐주물사 재생설비의 경우 개별 주물업체들이 자체로 설비를 갖추기에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 자치정부 차원에서 경남지역 전체의 주물공장 폐주물사를 처리하는 “폐주물사 재생처리 설비시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기호5번 무소속 이관맹은 도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경상남도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여 폐주물사 처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4대강(생태계 파괴, 녹조, 지하수위등)과 창녕.함안보에 대한 의견?

- 애초에 운하를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던 4대강 사업의 경우 사업에 소요되었던 막대한 국가 예산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당시부터 우려되었던 환경, 농업, 물길 변화 등에 걸쳐 각종 부작용들이 그대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까지는 현실화 되지 않고 있지만 “안전성“의 문제가 향후 커다란 걱정거리로 대두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 더구나 창녕 · 함안보가 건설되어 있는 우리 함안군 지역의 경우 더욱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사료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론화 되는 4대강과 관련한 의제들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함안군민의 안전한 생활“이라는 절대 명제에 우선되는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 경상남도 의회 의원선거 함안군 제1선거구 입후보자 기호5번 무소속 이관맹은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원칙으로 4대강에 관한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연구하고, 정책으로 입안하여 관철시켜갈 것입니다.
- 창녕 · 함안보와 관련한 경제적, 생활문화적 활용은 함안군의 행정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점이 많은 관계로 함안군과 최대한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